“중생제도 원력으로 화엄 종지 구현”

범어사, 10월 6일 1345주년 개산대재 봉행

창건주 의상대사 정신 새겨
“미래세대 전하는 유산 돼”
개산 기념 특별사진전 마련
게리 민티어 촬영사진 선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10월 6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5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개산 1345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이 봉행됐다. 범어사는 개산대재를 통해 개산조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인 화엄의 종지(宗旨)를 구현하고 유구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범어사(주지 보운)는 10월 6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5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개산대재에는 지유 대선사, 주지 보운 스님, 김해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 율원장 원창 스님과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 송숙희 부산시여성특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배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개산대재는 마하다도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헌향 및 헌다 △내빈소개 △범어사 연혁 및 조사 스님 행장 소개 △봉행사 △공로패 전달 △인사말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는 나한전 후불탱화를 점안하기까지 노력한 이연수 불화장과 김윤주 해성문화재 대표에게 전달됐다. 이날 범어사는 개산대재에 앞서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하고 팔상, 독성, 나한전의 후불탱화 7점을 점안했다.

지유 대선사는 법어를 통해 의상대사가 범어사를 창건하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했다. 스님은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건했고 지금은 선찰대본산이라 불린다”며 “선종과 화엄경은 근본 가르침이 같다. 화엄경의 뜻을 알려면 부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망상분별이 사라지고 일심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볼 때 이 세계가 아름다운 꽃 ‘화엄’과 같다”고 설법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범어사를 창건하신 의상조사께서는 화엄의 종지를 구현하고 중생제도의 원력으로 이곳 금정산에 터를 잡으셨다”며 “범어사는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백성의 의지처가 되고 유구한 전통을 지닌 우리 모두의 보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쌓아올린 현재의 시간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유산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개산대재가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해 서로 화합하고, 나아가 천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룩한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불교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개산대재를 기념하며 경내 일주문 일원에서 금정불교대학 민화반의 민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10월 8일에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다.

한편,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특별사진전 〈지금 이 순간 : This is the moment〉가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게리 민티어가 찍은 사진으로 구성됐다. 게리 민티어의 사진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연 ‘2023년 게리 민티어 기증 사진전 〈1970년 부산 평범한 일상, 특별한 시선〉’에 전시됐으며, 전시 가운데 범어사를 주제로 한 사진을 선별해 새롭게 선보였다.

전시는 범어사의 장소 중 4곳을 중심으로 옛 추억을 선사한다. 전시에서는 먼저 범어사에 들어선 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조계문을 중심으로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을 마주할 수 있으며,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장소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관람할 수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사진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이자, 기억을 더듬어 시간을 추억하는 방법”이라며 “천년고찰 범어사에서 나의 추억이 우리의 역사가 되는 순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출전망대 사업, 천성산 생태계 훼손 우려”

양산 내원사, 10월 10일 천성산 정상서 기자회견



천성산 정상에서 양산시의 일출전망대 건립 사업을 반대하는 내원사 대중.

경남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성산 일출전망대 사업에 대해 천성산 내원사(주지 지도)가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원사는 10월 10일 천성산 정상에 올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성산 일출전망대 추진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도 스님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출전망대 사업은 주위 환경과 습지보존지역 등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한 계획”이라며 “양산시는 시유지에 천성대를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규모 일출행사를 위한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 스님은 이어 천성산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양산시는 습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 천성산 정상은 물의 발원지이다. 이곳 정상을 개발해 많은 차량과 인원이 운집하면 습지는 고갈되고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라며 “천성산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지하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유지에 공사를 해 상관이 없다는 태도는 자연에 대해 무지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현재 양산시는 천성산 일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천성산 관광 자원화 가운데 천성산 일출전망대 건립은 핵심 사업으로 꼽혀 양산시가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양산시는 이번 달 공사에 착수해 내년 새해 일출행사 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도 스님은 “양산시는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금부터 인원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차량 진입과 도로 공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드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9회 천태 茶문화대회 개최

천태종, 10월 8일 부산 삼광사 일원서


스님들에게 차를 올리는 다도회의 헌공다례.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이 10월 8일 부산 삼광사 지관전과 경내 일원에서 ‘제19회 천태차문화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다례시연과 들차회가 진행됐으며 다법 경연에 참여한 다도회를 격려하며 시상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다례시연 및 경연에서는 대구 대성사 감로다도회와 창원 원흥사 원흥사다도회, 부산 정법사 다도회 등 6개 팀이 다법을 선보였으며, 들차회에는 포항 황해사, 공주 개명사, 대전 광수사 등 전국에서 모인 천태종 21개 사찰 다도회가 참여했다. 다례시연은 부처님전에 차를 올리는 헌공다례로 시작해 선차 다법,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접빈, 염불 및 명상 수행을 진행하는 수행차 등 다양한 다법이 무대에서 펼쳐졌다.

경연에서 금상은 창원 원흥사가 수상했으며, 은상은 정법사가 받았다. 동상은 대성사와 해성사, 장려상은 월강사와 금룡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천태종 소속 사찰 다도회는 말차, 김해장군차, 보이차, 쑥꽃차, 목책철관음, 백호오룡 등 다양한 차로 가을 찻자리를 꾸몄으며, 삼광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오늘 차 한 잔을 통해 대중이 다선일미를 맛보고 지혜와 자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며 “천태종은 전국 사찰에서 다도회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차문화 대회를 통해 차향을 나누며 소통하고 전통보존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천태종 교무부장 도웅 스님은 “차인에게 다도는 수행과 다르지 않다”며 “차향으로 충만한 오늘 대회가 지혜를 나누는 결실이 된다면 각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라 격려했다.

한편, 삼광사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창립 54주년 기념대법회’를 지관전에서 봉행한다. 이에 앞서 10월 31일에는 ‘삼광사 창립 54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BBS, 간화선 집중수행 참가자 모집

10월 23~28일, 5박6일간 은해사 운부선원서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간 경북 영천 운부선원에서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수행 프로그램 지도법사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다. 수불 스님은 30여 년간 3만여 명을 지도하며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집중수행은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불산 스님(운부선원 선원장)의 지원으로 경북 영천 운부선원에서 진행한다. 운부선원은 재가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수행처이며, 성철 스님이 수행 정진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운부선원은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장소다.

간화선 집중수행 과정은 BBS부산불교방송이 촬영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다.

BBS부산불교방송은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은 화두를 중심으로 참 나를 찾는 효과적인 수행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간화선을 최상의 수행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051)797-513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명사,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10월 8일, 광명사 불교문화회관 3층 지관전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8일 광명사 불교문화회관 3층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및 광명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육법공양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법어봉독 △봉행사 △법문 △축사 △기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천태종 감사원장 진덕 스님, 울산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이재동 광명사 신도회장 및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과 광명사 신도 및 천태불자들이 참석했다.

감사원장 진덕 스님은 “불자가 참다운 불자로 살기 위해 지켜야할 열 가지 계율을 십선(十善)이라 한다. 이렇게 병들어가는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약 중의 명약이 아닐 수 없고 그 특효약의 핵심이 바로 십선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법문했다.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은 “광명사의 지난 54년은 신행과 봉사의 길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구도 중생의 대승보살행을 닦아갈 것”이라고 봉행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명대사 열반 413주기 추모대재

부산불교연합회,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10월 10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413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추모대재를 통해 사명대사의 호국애민정신을 기리고 있다.

추모재에는 증명법사 혜총 대종사와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현강 정사 등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보운 스님은 “사명대사 열반 413주기를 맞아 엄수되는 추모 법석이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의지를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제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사명대사께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했듯,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애민정신을 실천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정각원, 연이은 봉사로 자비행

10월 9일 어르신 무료 효관광…11일 대중공양



자비나눔 실천단체 사단법인 부산정각원(대표 향공)이 지역 어르신을 위한 릴레이 봉사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정각원은 10월 9일 창녕 남지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노숙자와 지역 어르신 무료 효관광’을 개최했다.〈사진〉 이 행사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부산정각원은 지역주민센터의 추천과 플래카드 홍보 등으로 만 73세 이상 어르신 360여 명을 모집했으며 경남 창녕군 남지체육공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향공 스님은 “오늘처럼 청명한 날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하니 제 마음도 맑아진다. 또 흥겹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이 극락세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시면 가을 바람에 모두 날려 보내고 즐거움과 행복을 가득 담아 가시라”고 인사했다.

한편 부산정각원은 11일 ‘이웃과 함께하는 정 나누기 만발공양’을 부산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부산정각원은 700인분의 잔치국수를 준비해 시민에게 공양을 올렸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제2회 전국 사생대회 성료

초 · 중 · 고교 500여 명 참가



청소년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전국 사생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통도사(주지 현덕)는 10월 7일 경내에서 제2회 전국 초 · 중 · 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통도사는 개산대재를 기념하며 전국의 학생과 가족들에게 산문을 개방하고 산사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생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사생대회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생대회 사전 접수자만 400여 명에 이르며 현장 접수를 포함해 총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학생과 가족들은 통도사 경내를 거닐며 치유의 시간을 누렸으며,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사생대회 그림 주제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그리다’로 선정됐다.

사생실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리며, 입상자 발표는 10월 13일 통도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주지 현덕 스님은 사생대회 개막식에서 “통도사가 개산 1378주년을 맞았다.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지켜져 왔다. 이곳에서 진솔하게 마주하는 맑고 밝은 마음을 화폭에 담아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